

知성과 霸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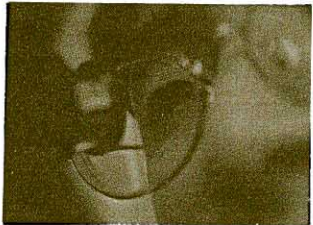
...



4 특별초대석/김태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모두가 이기적이면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고 만다/도윤정

스승의 그림자/함석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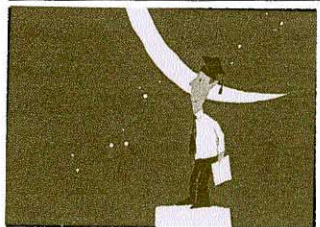
12 삶, 종교 그리고 기다림을 배웠다/김용준



14 나의 꿈 나의 삶/하정수
망원경과 컴퓨터를 좋아하는 작은 벽돌의 커다란 꿈/황금희

시

22 새벽 편지/곽재구



23 특집/대학을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대졸'이라는 이름의 값어치/황필호
'되면 좋은' 것과 '당연한' 것의 차이/권우재
한국 대학생의 직업관/편집실
'무엇'보다도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이시태

짧은 글 깊은 생각 40 생각을 되생각하기/정진홍

뿔아보는 현대사 44 한말 국제 보상 운동의 의의와 한계/이균영

대학생 문화 비평 50 '페미니즘'과 '서편제'와 '벗는 연극'

세계의 대학/예일 대학교 62 아이비 언덕은 적당주의를 싫어한다/김은식

잡지 「지성과 패기」

1993년 11, 12월호(통권19호) • 1993년 12월 8일 발행 • 격월간(비매품) • 1990년 9월 18일
등록(마-1646) • 발행인/손길승 • 편집인/최서호 • 발행처/선경그룹

• 「지성과 패기」는 환경 보호 운동에 동참코자 표지에 비닐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58 움직이는 대학/취업 문턱에 선 대학생들
낙타에게 바늘귀는 아무래도 좁다/유미영



68 한국의 섬/사랑도
사람과 바다, 저 아름다운 얼굴빛/함명춘

한 예술가의 초상

76 안토니오 가우디, 지상에서 가장 화려한 꿈/박명욱

84 대전 엑스포가 우리에게 남긴 것/주인석

88 國語 傳統性的의 회복, 漢字 혼용만이 그 지름길이다/南廣祐

캠퍼스 패션의 사회학/1960년대 92 '아버지 마이'와 '삼촌 바지'의 낭만/유석춘

대학생의 아버지 96 아버지의 그 많던 신수유 열매는? /이한주

하이테크의 물결 100 우주 발전, 환경과 에너지를 한꺼번에 해결한다/이창환

캠퍼스 토론 105 신세대론을 따진다

달라지는 세상 110 핵 패권과 핵 주권, 한국의 미래/김태우

내가 보낸 대학 4년 116 결국 찾지 못한 '자유 활용법'/류리

한민족 건강 관리법 119 늘리고 당겨 주어 氣의 흐름을 부드럽게 한다/안동환

이 책만큼은 122 구인환 교수가 뽑은 대학생 필독 한국 현대소설 10권

나의 대학 시절 126 미아리 순정은 이제 다 어디로 갔을까/윤동혁

동아리 탐방 130 벽찬 뜻을 이어주는 이 작은 몸놀림/김은희

'아버지 마이'와 '삼촌 바지'의 낭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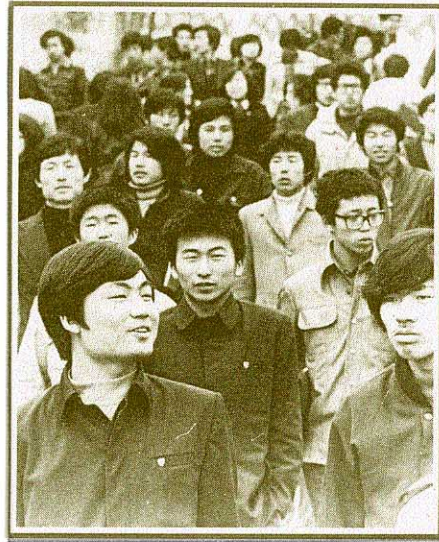
유석춘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감색 세 단추의 「쌍글」형에, 바지통은 9인치 푸른색 와이셔츠에, 학교 표지를 수놓은 감색 타이.' 이것은 어느 고등학교의 교복 디자인이 아니라 60년대 어느 사립 대학 남학생들의 교복 모양을 미리 알려주는 안내문이다.

한 대학 신문에 실린 이 머리기사는 사회적으로 대학생들의 품위를 높이고 보다 지각적인 행동을 기대하고, 이중 복장에서 오는 표리 생활을 지양한다고 덧붙이면서 '신사 교육'의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교복 입기'는 남학생뿐 아니라 여학생에게도 권장되었다. 여학생들의 교복은 여자로서의 미덕을 검소함에서 나타내도록 감색 잠바와 감색 또는 흑색 스커트로 지정되었다.

교복 입기는 권장 사항일 뿐 중·고교생들처럼 강제 사항은 아니었지만, 60년대 초반의 대학생들은 배지를 단 교복 또는 검정색 계통의 하의와 흰색 계통의 셔츠 등을 주로 입었다.

젊음과 활동성, 개성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는 지금의 대학에 반해서 60년대의 대학은 '신사와 숙녀'를 길러내는 데에 중점을 두고, 필요하다면 규제까지 가하였으며 학생들 스스로도 '자숙'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주로 여학생들의 차림이 규제와 자숙의 대상이 되었는데, 하이힐이나 타이트 스커트, 목걸이, 파라솔, 매니큐어, 귀고리 등은 학생의 품위를 유지하는 데에 저해가 되는 소품들로 간주되었다.

4·19, 6·3 사태, 67년 6·8 국회의원 부정 선거 등 역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그 중심에서 맛보았던 젊은이들이기도 하거니와 군사 정권의 '조국 근대화사업'의 기치 아래 온 국민이 '근검 절약'을 강요당하던 시기였기에 그들의 검소한 차림은 당시의

사회정치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지 검게 물들인 군복과 군화가 그 당시 남학생들의 일상적인 옷차림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과 같이 패션 산업이 젊은 고객으로 하여금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을 제공해 주지 못했던 60년대의 대학생은 남학생의 경우, 교복 또는 지금 같으면 아버지나 삼촌의 옷이라고 불릴 '기성 세대용' 양복 바지와 와이셔츠를 많이 입었고 그래도 패션에 민감한 여학생들은 명동이나 이대 앞 아니면 동네 양장점에서 옷을 맞춰 입었다.

남성의 매력이라면 근사한 외모보다는 능력이나 학벌, 장래의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절이라 남학생들은 그리 멋을 부리지 않았던 것 같다. 여학생들의 옷차림은 60년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상당히 대담하고 세련되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초반의

여학생들은 무릎 아래 까지 오는 풍성한 긴 치마와 흰색 양말, 힐보다는 굽이 낮은 학생용 구두를 많이 애용했는데, 60년대 후반에 와서 미니 스커트가 유행하면서 그들의 치마 길이는 경찰의 단속 대상 중 하나가 될 정도로 짧고 좁아졌다.

그래도 60년대 여학생들은 치마가 짧은 길든 간에 치마를 상당히 많이 입어서 심지어는 여행을 갈 때에도 치마를 입었다. 아마 요즘이라면 핫팬츠, 소매 없는 소위 '나시' 티에 선글라스를 썼을 것이다. 미국의 포크 문화와 히피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60년대 말미에 가서 당시로서는 선구적인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청바지 등 바지를 입기 시작했는데, '여학생답지 않게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교수님께 불러가서 야단을 맞은 여학생도 있을 정도였다.

미국 문화는 지금도 그렇듯이 당시의 대학생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페티

개성을 강조하는 지금의 대학과는 달리 60년대의 대학은 '신사와 숙녀'를 길러내는 데에 중점을 뒀고, 필요하다면 규제까지 가하였으며, 학생들 스스로도 '자숙'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였다.



페이지나 폴 앵커의 노래와 리드미컬한
 맘보가 유행하기도 했거니와 헐리우드가
 만들어 낸 여주인공들은 여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당시 여학생들로부터 가장
 주목받았던 헤로인은 오드리 헵번과 소피아
 로렌이었는데, 소피아 로렌의 육감적인
 몸매보다는 오드리 헵번의 청순가련한
 이미지가 더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던 것
 같다. 청순하고 깨끗한 얼굴에 애처로운
 정도로 마른 몸매는 여학생들이 추구하는
 '미의 절정'이었다.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했던 짧은 커트머리, 긴
 단발머리를 해서 끝을 밖으로 말아올린
 머리는 그 당시의 헐리우드 영화에서 흔히
 보는 스타일이기도 했고, 60년대
 여학생들이 즐겨 했던 머리 모양이기도 했다.

화장을 거의 안했던 것도 당시
 여학생들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랄 수 있다.
 졸업할 때까지 화장을 거의 안하다가 졸업식
 날이라고 모처럼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빨리 한다고 해도 3, 4학년이나
 되어야 얼굴에서 화장기를 찾아볼 수
 있었다.

60년대의 대학 축제는 90년대의 그것보다
 훨씬 더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 활쏘기, 풍선
 터뜨리기, 볼링 등의 게임과 여학생들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파는 떡, 과일,
 크림이 있었고 학교 방송국이 주관하는 야외
 음악회가 봄 밤의 정취를 한껏 북돋우기도
 했다. 남녀가 한쌍이 되어 추는 포크
 댄스에서는 한껏 멋을 부리느라 양복에
 넥타이 차림을 한 남학생과 원피스나
 정장식의 치마에 힐을 신은 여학생들의 '호흡
 맞추기'를 볼 수 있었다. 촌극과 가장 행렬은
 당시의 사회·정치 상황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담고 있었다. 63년부터 65년까지는

지금은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5월의 여왕
 대관식'은 축제를
 더욱 '축제답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옆).
 한·일회담은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이슈였다(아래).



한·일회담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이슈가 되었기 때문인지 각 단과
 대학별로 마련하는 촌극이나 가장 행렬의
 주제는 대부분 한·일회담의 굴욕적
 저자세와 한국에 불리한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투쟁'의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어떤 사립 대학에서는 일본의
 '닷포산' 차를 탄 이완용이 이순신 장군을
 끌어가는 내용의 가장 행렬이 최고상을
 받기도 했다. 군인들의 정치 쿠데타를
 신랄하게 풍자한 내용이라든지 미니 스킷
 풍속도를 비판한 내용의 것도 있었다.

지금은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지만 대학의
 '5월의 여왕 대관식'은 축제의 꽃으로서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었고, 축제를

더욱 '축제답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5월의 여왕'은 매년 5월에 각 단과대별로
 출전한 10여 명의 후보 중에서 남학생의 결선
 투표를 거쳐 1명을 뽑아 그 해의 여왕으로
 추대하는 학교 행사였다. 여왕의 출전
 조건은 '성적이 우수하고 외모가 단정하며
 성격이 온순한 여학생'으로서 당시의
 모범적인 여학생상이기도 했다. 그 당시
 남학생들은 '이런지런 조건이 너무 많아
 사람을 거르다 보면 막상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여왕의 조건을 보다
 완화하여 선택의 폭을 넓힐 것을 주장하기도
 했었다. 여왕이 되면 전체 학생의 몇 배가
 되는 관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10여 명의
 시녀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화려한 대관식을
 치르게 된다. 물론 왕관을 쓰고서 말이다. 그
 당시 대학 신문은 '5월의 여왕 대관식'이 갖는
 취지를 "남을 아껴주는 정신과 추대할 줄
 아는 겸양의 미덕을 배우게 함은 물론
 협동하는 마음과 양보심을 기르고 또 오랜
 전통인 신사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이렇듯 한 여학생을 떠받드는
 '의식'의 의미가 어떻게 비춰질지 궁금하다.

60년대는 산업화가 진척되면서 우리
 사회에 서서히 빈부 격차가 나타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집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은 커다란 짐이었다. 그래서인지 당시
 대학생들의 씬씬이는 그리 험프지 않았다.
 맥주는 당시로서는 매우 고급스런 술로
 여겨졌으며 학사주점에 가서 소주나
 막걸리를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술
 문화였다. 요새는 밤늦게 대학 주변을
 지날라치면 술에 취해 있는 여학생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때는 술과 여학생은 물과
 기름같은 사이였으며 담배 또한
 물론이었다. 어쩌다 미팅을 통해 여학생을
 만나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한 후, 어두컴컴한(당시는 모두
 그런 분위기였다.) 다방에 가서 차를 마시는
 것이 '정식 코스'였지, 같이 술을 마신다든지
 하는 일은 상상조차 못했다고 한다. 춤
 문화도 거의 없었으며 주로 명동의 이름난
 다방인 「돌체」나 동숭동의 「학림」 다방,
 연대 앞의 「독수리」 다방, 이대 입구의
 「파리」 등지에서 클래식이나 팝을 듣거나
 시험이 끝나는 날 교외선을 타고 송추, 일영
 등으로 테이트 나가는 것이 당시 대학 생활의
 낭만이였다.

대학 정원이 지금의 반도 안되었으니
 한산한 교정이 주는 여유가 있고, 상업주의
 문화에 찌들지 않은 대학가가 주변에
 자리했으며, TV나 라디오 등의 대중 매체가
 별로 보급되지 않았던 그 시기는 지금과
 비교하면 젊은이들의 감각이 의상에 잘
 반영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그 시기
 대학생들이 가졌을, 사색하고 독서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여유는 무언가
 '조금한' 느낌을 주는 지금 이 캠퍼스
 안에서는 옛모습처럼 다가온다.